

#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성규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Factors Affecting Baby Boomer's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Seong Gyu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샌드위치세대인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0)」 데이터파일 가운데 1,152건을 분석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배우자부모부양부담( $\beta = -.205$ ), 자녀관계만족도( $\beta = .202$ ), 부부관계만족도( $\beta = .200$ ), 주관적 건강상태( $\beta = .155$ ),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beta = .143$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여성 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인터넷활용도( $\beta = .247$ )의 영향력이 크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결과 남성의 삶의 만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 배우자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시부모부양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 삶의 만족도, 부양부담, 성별 차이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Korean Baby Boomers' life satisfaction. Using data from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of Middle Aged Persons(2010), this study focuses on whether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variability in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by gender. Couple satisfaction, self-rated health status, and expectations for the standard of living after 10 years were significant for both male and female models. It was noticeable to report that internet use level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were unique predictors for male model; spouse parent care burden and parent-child satisfaction were unique predictors for female mode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vital for policy planners to take gender differences into account when designing and formulating public policies for Korean Baby Boomer.

**Key Words** : baby boomer, life satisfaction, care burden, gender difference

Received 4 August 2014, Revised 18 September 2014  
Accepted 20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Seong Gyu, Le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Email: sglee1@uos.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2014년 현재 만 50세에서 58세(출생년도: 1955년-1963년)의 연령층으로서 유년기에 절대 빈곤을, 10대와 20대는 권위주의적 사회 환경을, 사회에 진출하여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그리고 고도 성장의 혜택과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쇠퇴를 겪으며,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전환기적 코호트 특성을 가진다[1, 2]. 무엇보다 베이비부머는 끼인 세대, 샌드위치 세대,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자식의 도리로 여기지만 그들의 자녀세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베이비부머는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의 봉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일 가능성이 크다[3]. 또한 베이비부머는 부모도 부양하고 자녀도 부양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5].

베이비부머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못할 경우에도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 연구에서는 비동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연소득 대비 약 14.6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베이비부머의 전통적 가족중심의 가치관 중에서 주목할 점은 베이비부머는 부모보다는 자녀중심으로 살아온 세대라는 평가인데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 7].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 내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립이 지연되면서 '88만원세대'로 전락한 베이비부머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베이비부머는 노부모뿐만 아니라 성인자녀도 돌봐야 하는 그야말로 3세대에 걸친 가족적 지원의 교환관계에서 끼이게 되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9].

노부모와 자녀 사이에 위치한 중간세대로서 또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서 베이비부머는 노부모도 부양하고 성인자녀도 부양해야 하는데 이 때 여성베이비부머는 부양의 주책임자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게 된다. 거기다 글로벌 경제의 여파로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움이 남편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은 많은 여성베이비부머로 하여금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하

고 있다[10]. 조선일보·한국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가 '신년기획 2011년 한국인이여 행복하라' 주제로 전 세계 10개국을 선정하여 5,19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50대 여성은 가장 불행한 집단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인생의 행복도는 U자형 행복곡선으로 40대에 바닥을 치지만 50대에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행복도 곡선이다. 물론 한국의 50대 남성들도 전형적 U자형 행복도 곡선을 보였지만 50대 여성은 아니었다. 50대 여성 가운데 10명중 7명이 빛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42.6%는 빛으로 인한 이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삶을 바쳐 뒷받침해온 가족에 대한 부담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가족에 대한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고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베이비부머는 2010년 약 712만 명으로 총 인구의 14.6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인구집단으로서 이들의 은퇴가 이미 시작되었고 또 노년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베이비부머들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동시에 성인이 된 자녀도 부양하게 되는 생애주기에 처했을 때, 이 부담이 어떻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규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0)」 전체 응답자 가운데 출생연도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이면서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응답하고 동시에 성인자녀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응답한 1,152건이 본 연구의 분석표본이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의 분포양상을 조사하고 응답자의 제 특성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후 특히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베이비부머들이 본인의 노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노부모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느끼는 부양부담과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느끼는 부양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응답자의 제 특성(성별, 연령, 월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라이프스타일,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삶의 만족도는 한마디로 주관적 행복감이다. 삶의 질은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심리적인 안녕상태(well-being), 등을 의미하며 삶의 질은 주로 삶의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 수준을 통하여 측정하게 된다[12]. 삶의 만족도는 개개인이 매일의 생활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삶의 주관적 평가이며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3]. 즉, 삶의 만족도는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충족감의 합치여부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다[14, 15]. 심신의 노화와 함께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의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경제상태, 라이프스타일, 등에서 변화가 진행되면서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조건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일관적이지 않다. 성별의 경우,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성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5, 16, 17, 18, 19]. 연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연령과 삶의 만족도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5, 17, 18, 21 24].

### 2.2 경제상태와 삶의 만족도

경제상태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다. 월평균소득이나 용돈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27, 28, 29, 30].

### 2.3 건강상태과 삶의 만족도

선행연구에서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수가 적을수록, 복합상병(comorbidity)이 적을수록, 일상생활수행기능이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32].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 33, 34].

### 2.4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도

가족은 특히 노화로 인한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할 때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관계망이면서 필요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한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구적, 재정적 지원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면서 주관적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 37]. 반면 모든 가족관계가 사회적 유대감이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족관계의 갈등적 측면이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38]. 개인이 유지하는 가족·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이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가족적 관계망이 활발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39, 40].

### 2.5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만족도

라이프스타일은 생활방식을 의미하며 태도나 가치관 등의 심리적 요인을 내포한다. 종교활동, 사회봉사활동, 취미오락, 등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취미나 오락활동, 학습활동, 봉사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참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41, 42, 43]. 미래의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비교적 낙천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유사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할 확률이 높다. 미래

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를 가질 경우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대사회는 새로운 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진화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환경적, 도구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2.6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과 삶의 만족도: 노부모부양부담과 성인자녀부양부담

인생주기의 측면에서 영유아기와 노년기에는 독립된 개체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다. 부양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제공해왔고 자녀양육과 노부모부양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족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이 그 의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45]. 가족을 돌보는 일은 보람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부담을 동반하기도 한다[45]. 따라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은 효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부양에 수반되는 부담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47].

노부모부양의 경우, 부양제공자의 성별이 부양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성별에 따른 부양부담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성부양자가 남성부양자보다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양제공자와 노인의 가족관계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부양부담의 차이를 연구한 미국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는데 부양제공자가 딸인 경우 아들보다, 아내인 경우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48, 49, 50]. 우리나라의 경우, 주부양제공자가 며느리인 경우, 딸이나 아들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1].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아직까지는 노부모부양을 가능한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2].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대신 부부만 사는 가구 및 독신가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53],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따로 살면서도 현재의 우리나라 중년층의 대부분은 노부모에게 정서적, 도구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4].

20세 이상 성인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면서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최근의 동향이 부모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재하다. 베이비부머는 현재 50대를 접하고 있고 OECD국가들 가운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50대 여성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면서 그 원인을 가족에 대한 애정과 함께 피로감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자녀들이 20세가 되면 독립하고 따라서 빈집증후군(empty nest syndrome)과 함께 자기계발활동과 사회기여활동 그리고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50대는 20세 이상 성인이 된 자녀의 학비는 물론이고 학비 외의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직장이 생길 때까지, 나아가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 손자녀 양육지원, 등이 필요한 자녀에게 부모들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베이비부머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55]. 최근 들어 서구의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녀세대의 취업 및 자립이 지연되면서 50대 여성의 취업률이 유례없이 높아져 왔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50대 여성들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고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특성을 지닌 베이비부머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영향요인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3. 연구방법

### 3.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0)」 전국자료 데이터 파일을 활용하였다. 동 자료는 중년층의 성공적인 노년기 진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 7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뽑은 46세-59세에 해당하는 4,050명이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출생연도: 1955-1963)이면서 노부모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동시

에 20세 이상 성인자녀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응답한 1,152건을 분석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 3.2 주요변수의 측정

### 3.2.1 종속변수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종속 변수로는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0)」에서 삶의 만족도를 묻는 12문항을 합산하여 합성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 3.2.2 독립변수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 연령, 월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라이프스타일, 부양부담(본인노부모 부양부담, 배우자 노부모부양부담, 성인자녀부양부담), 등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성인 경우 0값을 여성인 경우 1값을 지정하였다. 연령과 월가구소득은 연속변수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1값을, '나쁜 편이다' 2값을, '보통이다' 3값을, '좋은 편이다' 4값을, '매우 좋은 편이다' 5값을 각각 지정하였다. 부부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정하였다. 라이프스타일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귀하는 10년 후 귀택의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에 1값을, '다소 나빠질 것이다'에 2값을,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에 3값을, '다소 좋아질 것이다'에 4값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에 5값을 각각 지정하였다. 인터넷 활용도는 '귀하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십니까?'로 정보화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에 1값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에 2값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며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다'에 3값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한다'에 4값을 각각 지정하여 인터넷 활용도를 측정하였다. 여가활동 중요도는 '귀하의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에 1값을, '중요하지 않다'에 2값을, '보통이다'에 3값을, '중요하다'에 4값을, '매우 중요하다'에 5값을 각각 지정하였다.

부양부담은 '현재 귀하는 학비 외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20세 이상의 성인자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자녀의 생활비 지원으로 귀하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에 1값을 '부담스럽지 않다'에 2값을, '보통이다'에 3값을, '부담스럽다'에 4값을, '매우 부담스럽다'에 5값을 각각 지정하였다. '귀하는 지난 1년 간 부모님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습니까?'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전혀 주지 않음'에 0값을, '정기적인 또는 비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은 아니지만 주택 등 부동산 구매시 지원',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 '부동산 구매 시 지원 등은 아니지만 냉장고, TV, 등의 생활용품 구매 지원'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에 대하여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에 1값을 '부담스럽지 않다'에 2값을, '보통이다'에 3값을, '부담스럽다'에 4값을, '매우 부담스럽다'에 5값을 각각 지정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분석표본은 1,152건으로 남성 626명(54.3%), 여성 526명(45.7%)이었다. 연령은 '61~63년생'이 362명(31.4%), '58~60년생'이 478명(41.5%), '55~57년생'이 312명(27.1%)으로 나타났다. 월가구소득은 '월 0~300만원'이 212명(18.4%), '월301~600만원'이 635명(55.1%), '월 601~900만원'이 213명(18.5%), '월901만 원 이상'이 92명(8%)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3.53로 5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부부관계만족도와 자녀관계만족도는 각각 3.83, 4.07로 자녀관계만족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10년 후 경제생활 수준에 대하여 5점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를 나타내며 3점은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1점은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를 나타낸다.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평균 3.31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중요도는 5점에 가까울수록 중요도가 높은 것이며, 평균 3.83의 값을 나타냈다. 컴퓨터나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1,152)

Variables		N or Mean	% or S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626 54.3
		female	526 45.7
	age(unit: birth year)	61-63	362 31.4
		58-60	478 41.5
		55-57	312 27.1
economic status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10,000 Won)	0-300	212 18.4
		301-600	635 55.1
		601-900	213 18.5
		901 & over	92 8.0
health status	self-rated health status	continuous(1~5)	3.53 0.72
family relation satisfaction	couple satisfaction	continuous(1~5)	3.83 0.67
	parent/child satisfaction	continuous(1~5)	4.07 0.65
lifestyles	The standard of living after 10 years	continuous(1~5)	3.31 0.81
	leisure activity criticality	continuous(1~5)	3.83 0.69
	internet use level	continuous(1~4)	2.56 0.95
care burden	natural parent care burden	continuous(1~5)	2.46 0.87
	spouse's parent care burden	continuous(1~5)	2.48 0.86
	adult-child care burden	continuous(1~5)	3.17 1.00

인터넷 사용 등의 정보화 수준의 경우 2.56로 4점 만점 기준이 매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부양부담은 노부모부양의 경우, 본인부모부양부담과 배우자부모부양부담으로 세분하였고, 본인부모부양부담, 배우자부모부양부담의 평균값이 각각 2.46, 2.48로 나타나 대부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성인자녀부양부담의 평균값은 3.17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 조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값 차이

<Table 2>는 조사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 경제상태, 건강상태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서 성별의 경우, 여성과 남성 간에 삶의 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을 보면 58~60년생, 61~31년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Table 2> The different mean values of life satisfaction by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1,152)

Variables		Mean	SD	T or F	P	Scheff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le	42.04	6.18	-1.883	.060	
		female	41.36	5.96			
	age (unit: birth year)	61~63(a)	42.06	6.30	10.427	.000	a, b>c
		58~60(b)	42.24	5.82			
		55~57(c)	40.35	5.98			
economic status	monthly household income (unit: 10,000 Won)	0~300(a)	38.83	6.09	28,122***	.000	a<c, d
		301~600(b)	41.68	5.90			
		601~900(c)	43.38	5.51			
		901 & over(d)	44.16	5.90			
health status	self-rated health status	very bad(a)	35.63	7.67	25,741***	.000	a<c<e
		bad(b)	38.46	7.35			
		medium(c)	40.44	5.86			
		good(d)	42.57	5.48			
		very good(e)	46.67	6.55			

\*P<.05, \*\* P<.01, \*\*\* P<.001

<Table 3> The different mean values of life satisfaction by family relation satisfaction and lifestyles of respondents

(N = 1,152)

	Variables	Variables	Mean	SD	T or F	P	Scheffe
family relation satisfaction	couple satisfaction	not satisfied at all(a)	27.00	7.07	36.073	.000	a<b<e
		not satisfied(b)	35.63	7.74			
		medium(c)	39.15	5.80			
		satisfied(d)	42.56	5.45			
		satisfied very much(e)	44.54	6.27			
	parent-child satisfaction	not satisfied at all(a)	27.00	.	18.368	.000	
		not satisfied(b)	38.00	8.81			
		medium(c)	38.78	6.55			
		satisfied(d)	41.70	5.51			
		satisfied very much(e)	43.48	6.29			
lifestyles	expectations for the standard of living after 10 years	very bad(a)	33.82	7.22	21.143	.000	a<b, c<e
		bad(b)	40.10	6.07			
		no difference(c)	40.88	5.86			
		good(d)	42.78	5.81			
		very good(e)	46.24	5.33			
	leisure activity criticality	not critical at all(a)	37.00	9.27	8.819	.000	
		not critical(b)	37.94	6.84			
		medium(c)	40.71	5.67			
		critical(d)	41.98	5.85			
		very critical(e)	43.03	6.82			
	internet use level	no use(a)	39.74	6.34	18.792	.000	a<c<d
		some use with difficulty(b)	40.79	5.85			
		some use with no difficulty(c)	42.18	5.66			
		skilful use(d)	43.88	6.28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1). 월가구 소득의 경우 0~300만원인 집단이 600만 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3 가족관계 만족도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값 차이

<Table 3>은 조사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10년 후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 여가활동 중요도, 인터넷 활용도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서 부부관계 만족도의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 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36.073, p<.001), 자녀관계 만족도(F=18.368, p<.001),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21.143, p<.001), 여가활동 중요도(F=8.819, p<.001), 인터넷 활용도 (F=18.792, p<.001)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 4.4 부양부담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값 차이

<Table 4>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부양부담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본인부모부양 부담, 배우자부모부양부담, 성인자녀부양부담에 따라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성인자녀를 부양하거나 부양부담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값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집단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배우자부모부양부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Table 4> The different mean values of life satisfaction by care burden of respondents

(N = 1,152)

Variables		Mean	SD	F	P	Scheffe
natural parent care burden	not burdened at all(a)	43.93	6.93	10.014***	.000	a>e
	not burdened(b)	42.33	5.61			
	medium(c)	40.92	5.98			
	burdened(d)	39.48	6.34			
	very burdened(e)	36.89	7.57			
spouse's parent care burden	not burdened at all(a)	44.92	7.16	10.021***	.000	a>d
	not burdened(b)	42.61	5.52			
	medium(c)	41.13	5.85			
	burdened(d)	39.56	6.36			
	very burdened(e)	41.56	7.62			
adult-child care burden	not burdened at all(a)	43.26	5.94	8.232***	.000	a,b,c,d>e
	not burdened(b)	42.40	5.61			
	medium(c)	41.71	6.01			
	burdened(d)	41.58	5.91			
	very burdened(e)	38.17	7.71			

\*P<.05, \*\* P<.01, \*\*\* P<.001

<Table 5>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 = 1,152)

variables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2	v13
v1	-	.055	-.093**	.187***	.280***	.332***	.238***	.244***	.167***	.215***	-.215***	-.214***	-.130***
v2		-	.206***	-.008	.147***	.126***	-.037	-.016	.007	.216***	-.008	-.157***	-.032
v3			-	-.052	-.039	-.078**	-.112***	-.125***	.003	-.086**	.058	.034	.020
v4				-	.060*	.130***	.013	.057	.136***	.163***	-.134***	-.121**	-.142***
v5					-	.167***	.111***	.131***	.043	.133***	-.055	-.047	-.016
v6						-	.291***	.099**	.111***	.109***	-.163***	-.227***	-.080**
v7							-	.098**	.053	.070*	-.149***	-.129***	-.048
v8								-	.058	.082**	-.111**	-.136***	-.080**
v9									-	.190***	-.072*	-.031	.006
v10										-	-.108**	-.106**	-.023
v11											-	.781***	.222***
v12												-	.232***
v13													-

\*p < .05, \*\* p < .01, \*\*\* p < .001

v1 life satisfaction; v2 gender; v3 age; v4 monthly household income; v5 self-rated health status; v6 couple satisfaction; v7 parent-child satisfaction; v8 expectations for the standard of living after 10 years; v9 leisure activity criticality; v10 internet use level; v11 natural parent care burden; v12 spouse's parent care burden; v13 adult-child care burden.



로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p < .001$ ). 성인자녀부양부담도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 4.5 상관관계 분석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Table 5>와 같다. 변수들의 상관관계의 절대 값이 0.9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조선배, 1999), 본 연구의 가장 큰 상관계수는 본인부모부양부담과 배우자부모부양부담간의 상관계수가 0.781로 나타났으나 전체 변수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6 다중회귀분석 결과

<Table 6>은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

다. 베이스모형은 약 27.81%(수정된  $R^2$  값)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부부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 인터넷 활용도, 배우자부모부양부담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회귀계수( $\beta$ )의 경우 부부관계만족도( $\beta=.197$ ), 배우자부모부양부담( $\beta=-.163$ ), 주관적 건강상태( $\beta=.148$ ),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beta=.147$ ), 월가구소득( $\beta=.144$ ), 정보화수준( $\beta=.136$ ), 자녀관계만족도( $\beta=.128$ )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월가구소득, 정보화수준,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양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피부양자가 혈연에 의한 관계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인부모부양부담과 성인자녀부양부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우자부모부양부담은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 표본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베이비부머와 남성베이비

<Table 6> Multiple regressions on life satisfaction

(N = 1,152)

Variables	base model (n=1,152 )		female model (n =626)		male model (n=526)		
	B	S. E.	B	S. E.	B	S. E.	
constant	22.865***	6.491	19.736*	9.360	24.264*	9.278	
control variable	gender	-.887	.551	-	-	-	-
	age	-.062	.110	-.047	.158	-.104	.156
	monthly household income	.002**	.001	.002	.001	.003**	.001
	self-rated health status	1.258**	.366	1.317*	.507	1.268*	.533
family relation satisfaction	couple satisfaction	1.777***	.417	1.683**	.554	1.734**	.656
	parent-child satisfaction	1.177**	.406	2.006**	.618	.747	.551
lifestyles	expectation for the standard of living after 10 years	1.084**	.319	1.053*	.446	1.379**	.472
	leisure activity criticality	.537	.412	.727	.553	.041	.637
	internet use level	.895**	.300	.187	.404	1.775***	.459
care burden	natural parent care burden	.333	.505	.405	.618	-.052	.975
	spouse's parent care burden	-1.171*	.506	-1.419*	.578	-.489	1.052
	adult-care burden	-.178	.263	.154	.370	-.512	.381
adj R <sup>2</sup>	.278		.282		.285		
F	14.521***		8.701***		8.390***		

\* p < .05, \*\* p < .01, \*\*\* p < .001

부머 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부양부담의 하위변인들이 남성 응답자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에 배우자부양부담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배우자부모부양부담( $\beta=-.205$ ), 자녀관계만족도( $\beta=.202$ ), 부부관계만족도( $\beta=.200$ ), 주관적 건강상태( $\beta=.155$ ),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beta=.143$ )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여성응답자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인터넷활용도( $\beta=.247$ )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beta=.187$ ), 월가구소득( $\beta=.176$ ), 부부관계만족도( $\beta=.171$ ), 주관적 건강상태( $\beta=.14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영향요인도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 표본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 베이비부머와 남성 베이비부머 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부양부담의 하위변인들이 남성 응답자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에 배우자부양부담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배우자부모부양부담( $\beta=-.205$ ), 자녀관계만족도( $\beta=.202$ ), 부부관계만족도( $\beta=.200$ ), 주관적 건강상태( $\beta=.155$ ),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beta=.143$ )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여성응답자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인터넷활용도( $\beta=.247$ )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beta=.187$ ), 월가구소득( $\beta=.176$ ), 부부관계만족도( $\beta=.171$ ), 주관적 건강상태( $\beta=.14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영향요인도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 5. 논의 및 결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에 46세에서 59세 사이 성인 4,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응답자들 가운데 출생연도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인 베이비부머 가운데 노부모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동시에 20세 이상의 성인자녀도 경제적으로 부양한다고 응답한 1,152건을 본 연구를 위한 분석 표본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노부모도 부양하고 성인자녀도 부양하는 샌드위치세대로서의 베이비부머가 느끼는 부양부담의 정도가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성별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제 특성(연령, 월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부부관계만족도, 자녀관계만족도,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여가활동중요도, 인터넷활용도, 본인부모부양부담, 배우자부모부양부담, 성인자녀부양부담)에 따라 삶의 만족도 평균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베이스모형 분석결과,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관계만족도가  $p < .001$  수준에서, 월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관계만족도,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 인터넷활용도가  $p < .01$  수준에서, 배우자부모부양부담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만족도의 회귀계수는 1.777로서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중년층임을 감안할 때,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주를 이루는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건강은 연령층과 관계없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력의 크기도 1.171로서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은 응답자가 본인의 미래에 대한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기대감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회귀계수

의 값 1.084는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월가구소득이 미치는 영향보다 미래의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삶의 만족도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주관적 평가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터넷활용도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층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이 현재 노인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밀접하고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넷활용도는 노인인구에게는 새로운 기술로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배워야 하는 낯선 기술이었다면 중년층에게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어느 정도 익숙해 진 생활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활용이 청소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반면 중년층에게는 그 반대의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 주관적 행복감에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하지만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스모형을 남성모형과 여성모형을 나누어 분석한 다중회귀분석결과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주목할 분석결과는 부양부담의 하위변인들이 남성 베이비부머응답자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성 베이비부머응답자에게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배우자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의 경우, 표준화 계수가 베타 값이 -.205로서 여성 베이비부머응답자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커다란 설명력을 가지는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배우자부모에 대한 부양부담과 여성응답자의 삶의 만족도 간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관계만족도( $\beta=.202$ ), 부부관계만족도( $\beta=.200$ ), 주관적 건강상태( $\beta=.155$ ),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beta=.143$ )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베이비부머응답자들의 경우 여성베이비부머응답자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인터넷활용도( $\beta=.247$ )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10년 후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기대( $\beta=.187$ ), 월가구소득( $\beta=.176$ ), 부부관계만족도( $\beta=.171$ ), 주관적 건강상태( $\beta=.147$ )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한국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가 ‘신년기획

2011년 한국인이여 행복하라’ 주제로 전 세계 10개국을 선정하여 5,19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여론조사 분석결과 중에서 한국의 50대 여성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대 여성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그들이 삶을 바쳐 뒷받침해온 가족에 대한 부담, 특히 성인자녀에 대한 부담을 들고 있다[56].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인생의 행복도는 U자형 행복곡선으로 40대에 바닥을 치지만 50대에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행복도 곡선이다. 물론 한국의 50대 남성들도 전형적 U자형 행복도 곡선을 보였지만 50대 여성은 아니었다. 50대 여성 가운데 10명중 7명이 빛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42.6%는 빛으로 인한 이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년기획 2011년 한국인이여 행복하라’ 조사에서 전통적가치관 아래 평생 가족을 보살피는데 힘써온 한국의 50대 여성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피로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들에게 가족은 대체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74.1%)이었지만 ‘필요에 의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인생의 큰 부담’이라는 답이 한국인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필요 때문에 가족과 같이 산다는 답은 전체 평균(1.4%)의 3배(5.6%)가 넘었다. 같은 세대의 남성중에 이 답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50대 여성은 전형적인 샌드위치 세대 보수적인 부모 아래서 자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서도 정작 다음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박탈감이 빠져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조선일보·한국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의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양은 베이비부머에게는 부담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로 느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여준다.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도 본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요인이 아니었지만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은 여성모형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남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이 심각한 압박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베이비부머의 성별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고 남성모형과 여성모형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영향요인도 그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차이에 따른 베이비부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안 시 일괄적 서비스보다는 성별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예비노인으로서 미래 노년 인구층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파악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노년기로 진입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노화를 경험한다. 각 개인은 노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가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노화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그 변화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는가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57, 58]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그 바탕위에서 좀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고 할 수 있다[59].

## REFERENCES

- [1] Ha-Nam Bang, Dong-Kyun Shin, Seong-Kyun Lee, June Han, Ji-Kyung Kim, In-Chul Shin, Research on labor life span of Korean Baby Boomer Generation, Institute of Korean Labor, 2010.
- [2] Gyeong-Hee Chung, So-Jeong Lee, Yun-gyeong Lee, Su-bong Kim, Deok Sunwoo, Yeong-Hui Oh, Gyeong-Rae Kim, Bo-Mi Park, Hye-Yeong Yoo, Eun-Jin Lee, Baby boomer's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 [3] Soon-Dool Chung, Mi-Jung Koo,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 Comparison among Baby boomers,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2, 2011.
- [4] Gyeong-Hye Han, Seok-jin Woo, Hye-Gyeong Choi, Jeong-Hwa Ha, Sandra Timmermanns, Forgotten Generation at the Crossroads, 2010
- [5] Youn-Hee Shin, Kyung-Hye Han, Ho-Ki Kim, Byung-Hu Kim, Hye-Young Kim, Kyung-Suk Park, Baby Boomer generation at Risk: Are Social Solutions Possible? Korean Institute of Family Law, 2010
- [6] Gyeong-Hye Han, Seok-jin Woo, Hye-Gyeong Choi, Jeong-Hwa Ha, Sandra Timmermanns, Changes and continuities in korean baby boomer's lives, 2010-2012, 2012
- [8] The Chosun ilbo, 2011/01/14
- [7] The Chosun ilbo, 2011/01/14
- [9] Gwang-Hui Park, Gyeong-Hye Han,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Persons Who Reside in the Rural A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11, 2002
- [10] Seong-Jae Cho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Scale of he Concept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culture, Vol. 49, pp. 233-258, 1986.
- [11] Mal-Hee Seo, Ka-Hyo Yoo,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Olders near T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7, No. 12, pp. 29-41, 1999.
- [12] Seung-Hwan Oh, Dong-Seong Yoon, A Comparative Study on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among urban, farm and island a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32, pp. 119-147, 2006.
- [13] Palmore, E, and Kivett, V, Change in life satisfaction : A Longitudinal study of persons aged 46-70, Journal of Gerontology, Vol. 32, pp. 311-326, 1977.
- [14] Gi-Nam Park, Gender Differences i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Korean Journal of research

- in gerontology, Vol. 24, NO. 3, pp. 13-29, 2004.
- [15] Jun-Su Heo, Life Satisfaction of Community Resident Elderly Person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4, pp. 127-151, 2004.
- [1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 [17] Chen, C, Aging and life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4, No. 1, pp. 57-82, 2001.
- [18] Yeong-Hui Oh, Jae-Eun Seok, Jung-Don Kwon, Jeong-Seok Kim, Yeong-Ran Park, Jeong-Gi Lim, Old person's quality of life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 [19] Hyun-Sook Yoon, So-Young Heo,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 on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27, No. 3, pp. 649-666, 2007.
- [20] Soon-Dool Chung, Sun-Hee Lee, Change in Life Satisfaction of Korean Elderly: Comparisons of 1994, 2004, 2008 National Survey Results on the Elderly Life Conditions and Welfare Nee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31, No. 4, pp. 1229-1246, 2011.
- [21] Woon-Young Jeong, Se-Eun Jeong,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by Income Levels among Single Elderly Household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31, No. 4, pp. 1119-1134, 2011.
- [22] Myeong-Suk Kim, Jong-Wook Ko,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 An Integrative Approach,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6, pp. 246-259, 2013.
- [23] Jeong-Yeon Kim, Sok-Goo Lee, Sung-Koo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Behaviors, Health Status,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30, No. 2, pp. 471-484, 2010.
- [24] Chang-Hwan Shin, The Study on Effects of Objective Life Attributes on Depression of Elderly Mediated by Life-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30, No. 2, pp. 453-469, 2010.
- [25] Soon-Mi Park, Ji-A Son, Sung-Woo Bae,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prospective change of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 Focusing on the socio demographic variabl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5, No. 3, pp. 1-24, 2009.
- [26] Dong-Ho Lee, The Effects of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s Health Condi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30, No. 1, pp.93-108, 2010
- [27] Mee-Ae Lee, Their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Nursing Home Admission = Caregiver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18, No. 2, pp. 80-96, 1998.
- [28] Gyeong-Hye Han, Ju-Hyeon Kim, Gyeong-Min Kim, Does It Vary by Gender? = Supportive and Conflictual Social Networks and Mental Health of the Middle-aged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23, No. 2, pp. 155-170, 2003.
- [29] Mee-Ae Lee, Their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Nursing Home Admission = Caregiver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18, No. 2, pp. 80-96, 1998.
- [30] Dong-Bae Kim, Seo-Young Park, Characteristics of Social network and Suicidal ideation: Verifying of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Yonsei University, Vol. 24, pp. 109-129, 2010.
- [31] Su-Jie Chang, Structural and Functional Aspects of Social Network in Old Age, and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Comparison according to Age and Gender,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6, No. 1, pp. 75-100, 2010.
- [32] Havighurst, Robert J, "A Seminar Report": Human Development, Societal Change and Adult Moral Character, Religious education, Vol. 68, 1973.
- [33] Lawton, J, Due-Diligence Assessment A

- Specialized Audit to Manage Liabilities Associated With Property Transfers, Annual technical and business exhibition and symposium, Vol. 7, 1991.
- [34] Mee-Ae Lee, Their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Nursing Home Admission = Caregiver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18, No. 2, pp. 80-96, 1998.
- [35] Mee-Ae Lee, Their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Nursing Home Admission = Caregiver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18, No. 2, pp. 80-96, 1998.
- [3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1.
- [37] Horowitz, A, Family caregiving to the frail elderly. In Carl Eisdorfer,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 5, pp. 194-246, 1985.
- [38] Malonebeach, E.E, Zarit, S.H, Current research issues incaregiving ti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32, No. 2, pp. 103-114, 1991.
- [39] Miller, B, Cafasso, L,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Fact or artifact?, The gerontologist, Vol.32, pp. 498-507, 1992.
- [40] Mee-Ae Lee, A Study on the Level of Agreement between Impaired Elders and their Primary Family Caregivers: Problems in Family Proxy Assessments,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Vol. 10, No. 1, pp. 61-72, 2007.
- [41] Gyeong-Hee Chung, So-Jeong Lee, Yun-gyeong Lee, Su-bong Kim, Deok Sunwoo, Yeong-Hui Oh, Gyeong-Rae Kim, Bo-Mi Park, Hye-Yeong Yoo, Eun-Jin Lee, Baby boomer's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 [42] Mee-Ae Lee, Their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Nursing Home Admission = Caregiver Characteristics and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Vol. 18, No. 2, pp. 80-96, 1998.
- [43] Gyeong-Hee Chung, So-Jeong Lee, Yun-gyeong Lee, Su-bong Kim, Deok Sunwoo, Yeong-Hui Oh, Gyeong-Rae Kim, Bo-Mi Park, Hye-Yeong Yoo, Eun-Jin Lee, Baby boomer's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 [44] Gyeong-Hee Chung, So-Jeong Lee, Yun-gyeong Lee, Su-bong Kim, Deok Sunwoo, Yeong-Hui Oh, Gyeong-Rae Kim, Bo-Mi Park, Hye-Yeong Yoo, Eun-Jin Lee, Baby boomer's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 [45] The Chosun ilbo, 2011/01/14
- [46] Jin-Hui Bae, Focusing on the Function of Support by Their Children and Neighbors =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Vol. 20, pp. 197-216, 2004.
- [47] Mee-Ae Lee, Relative Effects of health and family factors on Geriatric Depression,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Vol. 22, pp. 623-635, 2011
- [48] Jin-Hui Bae, Focusing on the Function of Support by Their Children and Neighbors =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Vol. 20, pp. 197-216, 2004.

#### 이 성 규(Lee, Seong Gyu)



- 1984년 2월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학사)
- 1997년 4월 :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노인 정책
- E-Mail : sglee1@uos.ac.kr